

## 이라크 총선 경과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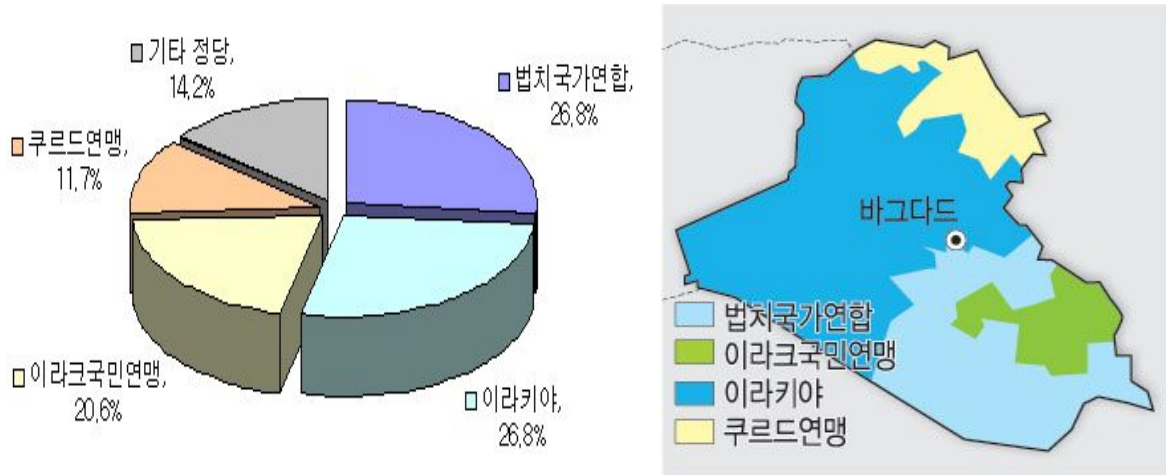
### 1. 이라크 총선 경과

#### □ 말리키-알라위 진영, 동일한 의석 수 획득 예상

- 이라크 전쟁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라크 총선이 3월 7일에 1,89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직접·비밀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각종 무장 테러에도 불구하고 18개 지역의 49,088개 투표소에서 62.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음.
- 이라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3월 17일 현재 개표율 79%를 기준으로, 이야드 알라위(Iyad al-Allawi) 전 총리가 이끄는 이라키야가 전국적으로 210만 2,981표를 얻어 209만 3,997표를 득표한 누리 알말리키(Nouri al-Maliki) 현 총리의 법치국가연합을 8,984표 차로 앞서고 있음.
  - 의석 배분<sup>1)</su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득표 내용에서는 법치국가연합이 총 18개 지역 중 최다 의석(68석)이 배분된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해 7개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이라키야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임.
- 현재까지의 득표 결과를 고려할 때, 법치국가연합과 이라키야가 각각 87석을 확보해 공동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미·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연합체인 이라크국민연맹은 67석, 쿠르드 정파는 38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1)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전체 325개 의석 중 310석은 18개 주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정당 연합별 의석 분포 및 우세 지역>



- 다만 미개표분 21%와 국내외 부재자 투표분<sup>2)</sup>을 반영하는 경우에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

□ 종파, 정파 간의 연합 세력 형성

-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가 이슬람 시아파는 물론 수니파, 쿠르드 정파, 기독교 정파를 포함한 40개 정당과 단체로 법치국가연합을 결성하는 등 총선 과정에서 종파, 정파 간의 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12개 정당 연맹체와 86개 정당에서 6,200여 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크게 법치국가연합, 이라키야, 이라크국민연맹, 쿠르드연맹의 4개 정파의 대결로 압축됨.

<표> 주요 정당 연합의 성격과 참여세력

정당 연합	지도자와 성향	주요 참여세력
법치국가연합 (The State of Law Coalition)	-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 - 친미 성향 - 2009년 지방선거 승리	Islamic Dawa Movement(시아파) Anbar Salvation National Front(수니파) Independent Arab Movement(수니파) United Independent Iraqi Bloc(쿠르드)
이라키야 (Iraqiya)	-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 - 타리크 알하시미 현 부통령	Iraqi National Accord(시아파) Iraqi Front for National Dialogue(수니파)

2) 이라크는 3월 4일에 선거일의 보안을 담당할 경찰, 군인, 의료 인력 등의 부재자 투표를, 3월 5~7일에는 16개국 해외거주자 140만 명의 부재자 투표를 각각 실시하였음.

	- 민족주의 성향 - 수니파 최대 정당 연합	Renewal List(수니파) Hadbaa Party(수니파)
이라크국민연맹 (Iraqi National Alliance)	- 이달 압둘마흐디 현 부통령 - 반미, 친이란 성향 - 강경 시아파 연합	Islamic Supreme Council of Iraq(시아파) Badr Organization(시아파) Sadrist Trend(시아파) Anbar Salvation Council(수니파)
쿠르드연맹 (Kurdish Alliance)	- 잘랄 탈라바니 현 대통령 - 쿠르드족 연합 정치 세력	Kurdish Democratic Party(쿠르드) Patriotic Union of Kurdistan(쿠르드) Gorran-Movement for Change(쿠르드) Islamic Union of Kurdistan(쿠르드)

## 2. 총선의 실시 배경

### □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이 목적

-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으로 2006년 4월에 구성된 국회 의장단 및 총리 등의 임기가 2010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신임 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sup>3)</sup>을 위하여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음.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나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총리가 각 부처의 행정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신임 총리 인선을 위한 이번 총선의 의미가 큼.

### □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난항으로 총선 연기

- 총선은 당초 2010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약 7주일 지연되어 3월 7일에 실시되었음.
- 유전지대인 키르쿠크(Kirkuk)<sup>4)</sup>의 선거방식에 대해 아랍계와 쿠르드계 의원들이 대립하였으나 2009년 11월 합의하여 의회 표결을 통과하였음.

3)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당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며, 향후 내각 구성과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4) 키르쿠크 지역은 전통적으로 쿠르드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아랍인들을 전략적으로 이주시키면서 현재는 여러 민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후 수니파 부통령인 타리크 알하시미(Tareq al-Hashimi)가 이 선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니파와 시아파 의원들의 합의로 2009년 12월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됨.

#### □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수 증가와 선거방식 변경

- 국민 10만 명당 1석의 비율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총선으로 선출될 의석수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2005년의 275석에서 2010년에는 325석으로 증가하였음.
- 325석 중 15석은 소수 종교 집단(기독교, 예지드파<sup>6)</sup> 등)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310석은 18개 주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 2005년 총선에는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얼굴도 모른 채 정당 이름만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가 채택되었으나, 2010년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사진을 정당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가 적용되었음.

### 3. 이라크 총선의 의의와 전망

#### □ 국가 재건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

-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진행되었던 2005년 총선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선거는 미국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치러졌으며, 전쟁과 독재, 폭력과 분쟁의 역사를 이어온 이라크인들이 독자적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정치적 안정과 국가 재건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임.

5) 쿠르드족인 잘랄 탈라바니(Jalal Talabani) 대통령과 시아파(압둘 마흐디), 수니파(타리크 알하시미)를 대표하는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대통령 위원회는 국회의 법률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6) 쿠르드족 전통 종교의 하나로서 이슬람교와 조로아스터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친미 정권인 시아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수니파 무장세력, 알카에다의 각종 테러에도 불구하고, 62.4%의 높은 투표율로 이라크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이번 선거는 이라크가 중동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금석임.

## □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제휴 예상

- 총선이 순조롭게 실시되었으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세력이 없어 신임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공동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치국가연합과 이라키야는 과반 의석으로 자기 진영의 인물을 신임 총리로 선출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당 세력 간 제휴를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총선에서 약진하여 4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될 반미 강경 시아파인 무크타다 알-사드르(Moqtada al-Sadr)의 사드르 정파(Sadrism)는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임.
  - 2005년 총선에서 현 총리의 정부 수립에 큰 기여를 했던 소수 민족 세력인 쿠르드족도 새 정부 출범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 사회혼란 심화 예상

- 정당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정치 세력의 규합과 연정 구성이 늦어질 경우에는, 통치권 부재로 알카에다와 같은 무장 세력의 공격이 증가하여 사회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 진영이 개표 과정에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전국적인 재검표를 요구하고

7) 사드르가 이끌었던 마흐디 민병대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반미무장투쟁을 벌여오다 2008년 휴전을 선언했으며, "미국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국민들은 일단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할 정도로 사드르 정파는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

나서는 등 선거 후유증이 우려됨.

## □ 향후 정국 전망

- 법치국가연합이 타 정파와의 연합에 성공하여 6월에 임기가 끝나는 말리키 총리가 재임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전 개발사업<sup>8)</sup>이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미군이 예정대로 2011년 말 완전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짐.
- 그러나 알라위 전 총리의 이라키야가 3, 4위 정파들과 제휴하는데 성공하여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유전 개발사업 등 현 정부의 추진 사업이 반미·반외세 성향의 강경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군 철수 계획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수니파가 혼재된 이라키야의 선전을 반기지 않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은 이라키야의 승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6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국민연맹의 이슬람최고회의(ISCI)와 반미 강경 시아파인 사드르 정파가 공히 친 이란 성향을 띠고 있어, 이들이 향후 연정 구성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사역 이현정(☎02-3779-5651)  
E-mail : [lhj0316@koreaexim.go.kr](mailto:lhj0316@koreaexim.go.kr)

8) 원유매장량 세계 3위인 이라크는 2009년에 국제입찰을 통해 10개 유전지역에서 개발업체를 선정했으며, 원유생산능력을 현재의 일 240만 배럴에서 2016년까지 1,2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임.